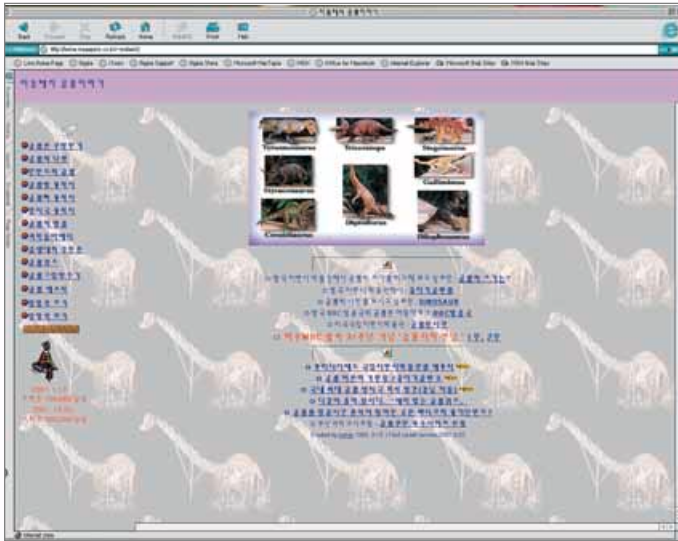


<이동해의 공룡 이야기>

한반도는 공룡의 낙원이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거대한 생물체인 공룡은 그저 화석으로 남아 자연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정도의 생물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이 멸종된 생물체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고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의 멸종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열중하고 있다. 날로 악화되는 자연환경의 오염 속에서 인류도 한때 지구를 호령했던 공룡처럼 멸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공룡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이동해의 공룡이야기 사이트 (<http://home.megapass.co.kr/~muhan2/>)에서 얻을 수 있다. 부산 과학교사 모임에서 우수 공룡 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한 이 사이트에서는 공룡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을 풀어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공룡은 무엇인가 △공룡의 낙원 △한반도의 공룡 △공룡알 유적지 △공룡뼈 유적지 △공룡의 멸종 등 공룡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사이트에 따르면 우리에게 공룡이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간들로 인해 지구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인류의 불안과 공룡 멸종에 대한 인류의 궁금증이 공룡의 인기를 높이고 있


글_ 김인순 전자신문 기자 insoon@etnews.co.kr

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룡의 낙원 코너에 수록된 내용은 우리 나라가 공룡의 낙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이트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50여개 지역에서 6천5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등 우리 나라가 공룡의 낙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의 공룡 코너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중생대 백악기에 공룡이 대거 서식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이트에 따르면 1972년 경북대 양승영 교수가 경남 하동에서 공룡알 껍데기를 발견하면서부터 공룡의 골격, 알, 발자국 화석 등이 대거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 공룡 발자국은 지난 1982년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에서 1천 800여 개가 발견된 이래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공룡의 흔적이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노출된 지층 가운데 중생대 지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룡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우리 나라에서 전체 모습을 다 갖춘 공룡 화석이 발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흥수처럼 급격한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게 과학자들의 추론이다. 공룡이 온전한 모습으로 땅 속에 묻힐 계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공룡에 대한 다양한 상식은 물론 공룡의 뼈나 발자국, 알 등이 나온 유적지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룡알 유적지로는 경남 하동과 고성군, 하동시와 전남 보성, 경기 화성시 등을 꼽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공룡의 탄생에서부터 멸종에 이르기까지 공룡을 둘러싼 갖가지 궁금증을 풀 수 있다. 공룡의 어원 등을 맞히는 공룡 퀴즈에서는 보다 재미있게 공룡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했다. 또 공룡 그림 맞추기 코너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공룡 사진을 다운받아 퍼즐 맞추기를 하며 공룡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했다. 



글쓴이는 숭실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